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남아와 여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Gender-Specific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김지현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권연희

Department of Child Studies and Education, Hanyang Cyber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Jihyun Ki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Lecturer : Yeonhee Kwo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gender-specific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participants were 191, 4th and 5th graders and their mother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ctive coping strategies explained boys' aggressive behaviors, (2) mother's warm-encouragement parenting behaviors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explained boys' delinquent behaviors, (3) mother's warm-encouragement parenting behaviors explained boys' withdrawn behaviors, and (4) mother's mediation-supervision parenting behaviors and negative emotionality explained girls' aggressive behaviors. In conclusi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have gender-specific influence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주제어(Key Words) : 외현화 행동문제(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내면화 행동문제(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 어머니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스트레스 대처행동(stress coping strategies)

Corresponding Author : Yeonhee Kwo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4668 Fax: +82-2-363-8877 E-mail: imkyh100@naver.com

I. 서론

아동의 행동문제는 주변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Kauffman, 1981), 이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성장한 이후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동문제의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김선희, 김경연, 1999). 특히 아동기부터 지속되어 온 행동문제는 청소년기에 심각하게 표출될 수 있으므로(Morita, Suzuki, & Kamoshita, 1990) 청소년기의 행동문제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동문제가 만성화되기 전인 아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대인간 요인과 개인내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대인간 요인으로서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맥락인 가족 체계에 주목하였고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크게 관련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정적이지 않고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행동문제를 야기하며(이경주, 신효식, 1998), 부모가 아동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 및 통제를 많이 보이며, 강압적 또는 회피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서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MacKinnon-Lewis, et al., 1994), 위축된 행동을 많이 보이는 등(LaFreniere & Capuano, 1997)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모의 행동적,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된 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 언어를 통해 아동의 느낌과 사고를 조정하는 심리적 통제는 내면화된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Barber, Olsen, & Shagle, 1994). 반면에 온정적이고 행동적으로 통제하는 부모의 자녀는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문제를 덜 보였다(Bulkley & Chao, 2003).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에 중요한 개인내 요인으로는 아동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들 수 있다. 정서 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적인 각성 상태를 조절하고, 유지하고, 강화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Eisenberg, et al., 1997). 타인과 상호 작용할 때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러한 능력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기의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고, 아동들은 이러한 정서조절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한다. 정서지능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황혜정, 1997)에서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가 정서 및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 되었다.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

시에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임으로써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김지현, 박경자, 2006; 박혜경, 박성연, 2002; Eisenberg, et al., 1999). 또한 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은 아동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행동억제를 나타내어 또래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된다(노서연, 2003; Calkins, 1994). 같은 맥락에서 Cassidy, Parke, Butkovsky와 Braungart(1992)도 학업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사회적 적응문제 등이 정서와 관련된다는 점을 보고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또래 집단과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행동문제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를 고찰하기에 앞서 스트레스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스트레스란 개인의 적응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내적 또는 외적 자극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Compas, 1987). 이러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전 생애에 걸쳐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볼 때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문제를 덜 보이는 개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Compas, Malcarne, & Fondacaro, 1998), 스트레스 자체 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와 관계된 대처행동의 중요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자신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O'Brien, Margolin과 John(1995)은 부모의 결혼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대처행동과 적응을 살펴본 결과 아동이 문제 중심 대처행동 중 사회적 지지를 촉진시키는 대처행동을 사용할 때 부적응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처행동을 살펴본 Griffith, Dubow와 Ippolito(2000)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 중심 대처행동은 청소년의 낙관적인 적응을 예언하는 한편, 정서 중심 대처행동은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 보고된 연구들에 따르면, 박경순(1999)은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 우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수동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은 능동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아와 정문자(2001)는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아동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사회적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

용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며,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한 개인내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살펴본 변인으로 아동의 성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성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입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몇몇 선행연구들은 행동문제의 유형과 발생빈도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선희, 김경연, 2001; 이현정, 1997; Eme, 1979). DSM-III-R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행동장애는 남아가 약 9%, 여아가 약 2%로 나타났다. 또한 Martin과 Hoffman(1990)도 전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문제를 조사한 결과 약 4-8% 정도가 행동장애를 보였으며, 이 중 남아가 여아보다 평균 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행동문제의 유형에 있어서도 남아는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를 주로 보이는 반면 여아는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주로 보인다(한미현, 1996). 그러나 행동문제의 성차를 보고한 연구들과는 다르게 몇몇 연구들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즉, 이들 연구에 따르면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여아와 남아 간의 성차가 없으며(Dishion, Duncan, Eddy, Fagot, & Fetrow, 1994; Rowe, Vazsonyi, & Flannery, 1995), 우울 성향에서도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권영옥, 이정덕, 1999; 심희옥, 1997).

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기술 통계에서 아동의 행동 문제에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Kim, Hetherington과 Reiss(1999)가 제안한 것과 같이 아동의 행동 문제와 다른 가족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볼 경우에는 아동의 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의 행동 문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그 인과적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경로를 보인 전연진과 정문자(2003)의 연구,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본 김선희와 김경연(2001)의 연구, 그리고 유아부터 초기 아동기까지 남녀 아동의 외현화 행동 문제의 변화율이 다른 결과를 밝히면서 아동의 성에 따라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 경로가 다를 수 있다고 제안한 Cold, Mott와 Berman(2002)의 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행동문제는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행동문제와 각각의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는 한편, 몇몇 연구들이 일부 변인들 간의 중재적인 역할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변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을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정서조절 및 문제 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각 변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이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성에 따라 구분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이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사 및 부모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 및 필요성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남아와 여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아동 총 191명(남아 87명, 여아 104명: 4학년 97명, 5학년 94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초등학교 4, 5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12세를 기점으로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이 청소년 행동문제 유형으로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Achenbach, 1991)와 함께 이 시기가 질문지 보고 방법이 가능한 연령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87명(45.5%), 여아 104명(54.5%)로 여아가 더 많았고, 학년별 구성은 4학년이 97명(50.8%), 5학년이 94명(49.2%)으로 비슷하였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69.7%, 어머니의 50.6%가 40대였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는 대졸이 34.0%, 고졸이 32.5%였고, 어머니는 주로 고졸(53.9%)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일반사무직(26.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영업(51.8%)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고(52.4%), 그 다음은 시간제 취업(22.0%)이었다. 가계의 월수입은 200만원대(26.7%)와 300만원대(25.4%)가 많았다.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지현과 박경자(2006)의 어머니 양육행동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온정·수용(10문항), 비일관적 훈육(7문항), 신체적 체벌(5문항), 관리·감독(6문항)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28문항이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나타난 양육행동을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 사용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온정·수용이 .84, 관리·감독이 .71, 비일관적 훈육이 .75, 신체적 체벌이 .72였다.

2) 아동의 정서조절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척도는 Shields와 Cicchetti(1995, 1997)가 개발한 교사 및 부모용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의 척도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정서성 6문항과 조절 10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는 아동이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을 보이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부정적 정서성이 .73, 조절이 .70이었다.

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진아와 정문자(2001)가 수정·보완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중 적극적 대처행동 5문항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5문항, 총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적극적 대처행동이 .82,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64이었다.

4)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문제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면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1991)에 의해 개발된 CBCL을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한국어판으로 개발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의 자기 보고형(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을 사용하였다. K-YSR은 사회능력 척도와 행동문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면화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6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2문항, 공격성 19문항의 총 31문항, 내면화 행동문제는 위축 7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4

문항의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YSR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외현화 행동문제가 .86, 내면화 행동문제가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동 19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학급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5분이었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후 담임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였다. 담임 교사에게는 아동들이 어머니용 질문지를 갖고 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질문지 수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어머니의 솔직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회수 시에는 밀봉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244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211부였고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여 분석 가능한 것이 191부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의 점수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성에 따라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각 변인이 아동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결과 대인간 요인(어머니 양육행동)과 개인내 요인(아동의 정서조절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인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남녀 집단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의 행동문제와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가능한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를 남자와 여아 집단별로 제시하고 두 집단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평균은 남아 14.9점, 여아가 13.4점으로 이를 0-2점의 3점 척도의 문항평균으로 전환하

면 남아 .48점, 여아 .43점으로 남아 여아 모두 낮은 수준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였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평균은 남아 14.6점, 여아가 15.0점으로 이를 0-2점의 3점 척도의 문항평균으로 전환하면 남아 .49점, 여아 .05점으로 남아 여아 모두 낮은 수준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였다.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영역의 평균점수는 남아의 경우 온정·수용이 30.5점, 관리·감독이 20.6점, 비일관적 훈육이 12.4점, 신체적 체벌이 8.5점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온정·수용이 31.6점, 관리·감독이 21.7점, 비일관적 훈육이 12.5점, 신체적 체벌이 8.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문항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남아의 경우 온정·수용이 3.1점, 관리·감독이 3.4점으로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3점인 '대체로 그렇다'와 4점인 '정말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과 관리·감독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체벌의 경우는 문항 평균 점수가 1.7점이고 비일관적 훈육의 경우는 1.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점 척도 중 2점인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의 신체적 체벌과 비일관적 훈육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아의 경우 온정·수용이 3.2점, 관리·감독이 3.6점으로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3점인 '대체로 그렇다'와 4점인 '정말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과 관리·감독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체벌의 경우는 문항 평균 점수가 1.8점이고 비일관적 훈육의 경우는 1.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점 척도 중 2점인 '대체

로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의 신체적 체벌과 비일관적 훈육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영역 중 관리·감독의 성차가 나타났는데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관리·감독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t = -3.06, p < .01$).

아동의 정서조절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는 남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이 12.2점, 조절이 30.1점이었고, 여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이 12.2점, 조절이 31.3점이었다. 이를 문항평균으로 전환하면 남아와 여아 부정적 정서성이 2.0점, 남아의 조절이 3.0점, 여아의 조절이 3.1점으로 남아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수준이고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는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경우 남아는 9.9점, 여아는 10.7점이었고,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남아는 12.9점, 여아는 13.8점이었다. 이를 문항평균으로 전환하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경우 남아는 2.0점, 여아는 2.1점이었고,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남아는 2.6점, 여아는 2.8점이었다. 이는 남아 여아 모두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 대처 행동의 경우는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의 대처행동을 보임을 의미한다.

한편, 각 측정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온정·수용이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공격성($r = -.22, p < .05$)과 비행($r = -.26, p < .05$)에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내면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위축($r = -.25, p < .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

〈표 1〉 아동의 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

변인	통계치	가능점수 범위	남(n = 87)		여(n = 104)		t
			점수 범위	M(SD)	점수범위	M(SD)	
외현화 행동문제	공격성	0-57	0-29	12.0(6.3)	0-24	10.9(5.7)	1.27
	비행	0-36	1-10	2.9(2.2)	0-17	2.5(2.1)	1.40
	총점	0-62	0-39	14.9(7.9)	0-41	13.4(7.2)	1.41
내면화 행동문제	신체증상	0-27	0-13	3.8(3.2)	0-12	3.4(2.8)	.90
	우울·불안	0-42	0-26	7.6(5.3)	0-25	8.4(5.1)	-1.10
	위축	0-21	0-10	3.3(2.6)	0-9	2.9(2.0)	1.34
	총점	0-60	0-44	14.6(9.1)	0-43	15.0(8.5)	-3.30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수용	0-40	15-38	30.5(3.9)	20-40	31.6(4.1)	-1.80
	관리·감독	0-24	13-29	20.6(2.7)	14-24	21.7(2.1)	-3.06*
	비일관적 훈육	0-28	7-19	12.4(2.8)	7-24	12.5(3.3)	-.08
	신체적 체벌	0-15	5-14	8.5(2.3)	5-17	8.1(2.6)	.10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성	0-24	6-23	12.2(3.2)	7-21	12.2(3.0)	.08
	조절	0-40	20-38	30.1(3.6)	14-38	31.3(3.5)	-.22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회지지대처행동	0-20	5-18	9.9(3.1)	5-19	10.7(3.1)	-1.67
	적극적 대처행동	0-20	5-20	12.9(3.9)	5-20	13.8(3.4)	-1.66

* $p < .01$

〈표 2〉 남아 집단의 측정 변인들 간 적률상관계수

(N = 8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온정수용	1.00												
(2) 관리감독	.24*	1.00											
(3) 비밀관적훈육	.02	-.26*	1.00										
(4) 신체적체벌	-.29**	-.07	.25*	1.00									
(5) 부정적정서성	-.15	-.12	.21	.34**	1.00								
(6) 조절	.30**	.26*	-.19	-.42**	-.61**	1.00							
(7) 사회지지대처	.04	-.02	.03	-.07	.03	.06	1.00						
(8) 적극적대처	.16	.22*	-.20	-.05	-.18	.23*	.60**	1.00					
(9) 공격성	-.22*	-.21	.03	-.01	.03	-.12	-.15	-.38**	1.00				
(10) 비행	-.26*	-.13	.02	.03	.14	-.13	-.11	-.34**	.64**	1.00			
(11) 신체증상	-.18	-.24*	.11	.15	.17	-.07	.05	-.08	.39**	.30**	1.00		
(12) 우울	-.08	-.11	-.04	.02	.01	-.05	.07	-.13	.56**	.37**	.52**	1.00	
(13) 위축	-.25*	-.07	.15	.15	.22*	-.21	-.09	-.15	.45**	.35**	.53**	.67**	1.00

* $p < .05$, ** $p < .01$

〈표 3〉 여아 집단의 측정 변인들 간 적률상관계수

(N = 1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온정수용	1.00												
(2) 관리감독	.15	1.00											
(3) 비밀관적훈육	-.17	-.40**	1.00										
(4) 신체적체벌	-.31**	.05	.09	1.00									
(5) 부정적정서성	-.16	-.18	.26**	.23*	1.00								
(6) 조절	.28**	.19	-.20*	-.27**	-.63**	1.00							
(7) 사회지지추구	.08	.14	-.34**	-.05	-.24*	.16	1.00						
(8) 적극적대처	.12	.06	-.11	-.13	-.24*	.20*	.51**	1.00					
(9) 공격성	-.11	-.22*	.15	-.02	.43***	-.33**	-.23*	-.23*	1.00				
(10) 비행	.09	.00	.01	-.07	.24*	-.36***	-.19	-.28**	.58**	1.00			
(11) 신체증상	.00	-.05	.01	-.05	.08	-.14	-.13	-.20*	.43**	.37**	1.00		
(12) 우울	-.03	-.02	-.04	-.01	.19	-.13	-.06	-.21*	.62**	.38**	.56**	1.00	
(13) 위축	-.10	-.19	.03	-.02	.13	-.22*	-.16	-.28**	.45**	.54**	.57**	.63**	1.00

* $p < .05$, ** $p < .01$, *** $p < .001$

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 중 관리·감독은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 중 신체증상($r = -.24, p < .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여아의 경우 관리·감독이 공격성($r = -.22, p < .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며, 위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리 감독을 잘 하면 신체증상(예, 의학적으로 밝혀진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증상 -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등)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 하는 행동을 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위축($r = .22, p < .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여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이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공격성($r = .43, p < .001$)과 비행($r = .24, p < .05$)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조절은 공격성($r = -.33, p < .01$)과 비행($r = -.36, p < .001$)과 부적 상관을,

내면화 행동 문제 하위 영역 중 위축($r = -.22, p < .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보이는 남아의 경우 위축 행동을 많이 보이며,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보이는 여아의 경우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 및 정서를 잘 조절하는 여아는 외현적 행동문제와 내면화 행동문제 중 위축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적극적 대처행동이 공격성($r = -.38, p < .01$)과 비행($r = -.34, p < .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여아의 경우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공격성($r = -.23, p < .05$)과 부적 상관을, 적극적 대처행동은 공격성($r = -.23, p < .05$), 비행($r = -.28, p < .01$), 신체증상($r = -.20, p < .05$), 우울($r = -.21, p < .05$), 위축($r = -.28, p < .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경우 외현화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여아는 공격적 행동을 적게 보이며, 적극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여아는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면화 행동 문제를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영향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파악하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남·여 집단별로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에서 대인간 요인인 어머니 양육행동과 개인내 요인인 아동의 정서조절과 대처 행동 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인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아의 경우 외현화 행동문제(공격성, 비행)와 내면화 행동 문제 중 위축을 종속변인으로, 여아의 경우 외현화 행동문제 중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남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앞선 상관분석에서 대인간 요인인 어머니 양육행동과 개인내 요인인 아동의 정서 조절, 대처 행동 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인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앞선 상관 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을 투입한 후, 2단계에 아동의 정서조절, 대처 행동 중 상관 계수가 유의한 변인을 투입하였다.

남아의 외현적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공격성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남아의 공격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1단계에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을 투입하고, 2단계에 스트레스 대처 행동 중 적극적 대처행동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비행의 변량에 대해 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단계에 적극적 대처행동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12%로 증가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중 공격성 변량의 17%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극적 대처행동 변인만인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 p < .01$). 이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 대처행동이 남아의 공격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 대처행동이 남아의 공격적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보이는 남아일수록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덜 보이고 있었다.

남아의 외현적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비행에 대한 변인

<표 4>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어머니	온정·수용	-.22*	-.17
남아	적극적 대처행동		-.35**
ΔR^2		.05*	.12**
R^2			.17
F		4.35*	8.62***

* $p < .05$, ** $p < .01$, *** $p < .001$

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남아의 비행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1단계에 어머니 양육 행동 중 온정·수용을 투입하고, 2단계에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 적극적 대처행동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에서 어머니 온정·수용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 문제 하위 영역 중 비행의 변량에 대해 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단계에 적극적 대처행동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9% 증가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중 공격성 변량의 16%를 설명해 주었다. 요약하면,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보이는 남아일수록 비행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덜 보이고 있었다.

<표 5> 남아의 비행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위계적 회귀 분석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어머니	온정·수용	-.26*	-.21*
남아	적극적 대처행동		-.31**
ΔR^2		.07*	.09**
R^2			.16
F		6.14*	7.91**

* $p < .05$, ** $p < .01$

남아의 내면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위축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남아의 위축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1단계에 어머니 양육 행동 중 온정·수용을 투입하고, 2단계에 정서조절 중 부정적 정서성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에서 어머니 온정·수용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 문제 하위 영역 중 위축 변량에 대해 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단계에 부정적 정서성은 위축 행동에 대해 4%의 추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 중 위축 변량의 10%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온정·수용 변인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2, p < .05$). 이는 어머니의 온정 수용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성이 남아의 위축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남아의 위축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남아일수록 위축행동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덜 보이고 있었다.

〈표 6〉 남아의 위축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87)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어머니	온정·수용	-.25*	-.22*
남아	부정적 정서성		.19
ΔR^2		.06*	.04
R^2			.10
F		5.44*	4.40*

* $p < .05$

2) 여아의 행동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영향

여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공격성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여아의 공격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1단계에 어머니 양육행동 중 관리·감독을 투입하고, 2단계에 정서조절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변인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에서 어머니 관리·감독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공격성 변량에 대해 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단계에 정서조절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18%로 증가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표 7〉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104)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어머니	관리·감독	-.22*	-.13
여아	부정적 정서성		.32**
	조절		-.07
	사회지지추구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행동		-.07 -.09
ΔR^2		.05*	.18***
R^2			.23
F		5.10*	5.91***

* $p < .05$, ** $p < .01$, *** $p < .001$

여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중 공격성 변량의 23%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부정적 정서성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 p < .01$). 이는 어머니의 관리 감독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성이 여아의 공격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여아의 공격적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부정적 정서성을 보이는 여아일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남, 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행동 문제에 대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아동의 성에 따른 행동 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 문제 모두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행동 문제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연구들(Dishion et al., 1994; Rowe et al., 1995)과는 일치하지만, 남아의 경우 외현화 행동 문제를 많이 보이고, 여아의 경우 내면화 행동 문제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박진아, 정문자, 2001; 오경자, 1991; 한미현, 1996; Horowitz & White, 1987)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Knight, Guthrie, Page와 Fabes(2002)는 지난 30년간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남아는 더 쉽게 각성되고,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우며,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행동 문제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의 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아동이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 및 사회의 기대와 반응이 다르며, 이에 따라 아동은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남아보다 여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행동하게 되고 이것이 또한 양육자로 하여금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권연희, 박경자, 2003; Shaffer, 2000; Tamis-LeMonda, Briggs, McClowry, & Snow, 2009). 하지만,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어머니가 보이는 양육 행동은 관리·감독 양육행동에서만 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양육행동의 다른 하위 영역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연구 대상 아동은 자신들의 성에 따라 다른 양육 행동을 받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행동 문제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행동 문제의 평균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 대상 남녀 아동의 행동 문제는 0-2 점의 점수 범위에서 .5보다 낮은 점수로 낮은 수준의 행동 문제를 보였다. 이처럼 아동의 행동 문제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간 요인인 어머니 양육 행동과 개인내 요인인 아동의 정서 조절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에서 변인 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행동 문제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공격성, 비행, 위축 행동 문제와 여아의 공격성 행동 문제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이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은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 행동과 적극적 대처 행동은 남아의 공격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 대처 행동이 남아의 공격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영역 중 비행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을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 행동과 적극적인 대처 행동이 남아의 비행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아의 적극적 대처 행동과 같은 개인내 요인이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대인간 요인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아의 적극적 대처 행동이 외현화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대처 행동을 사용할수록 이들의 행동 문제가 적다는 연구들(박경순, 1999; 박진아, 정문자, 2001; Griffith et al., 2000)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O'Brien 외(1995)가 제안한 것과는 달리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촉진시키는 대처 행동은 본 연구 대상 남아의 외현화 행동 문제와 관련되지 않았지만, 남아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대처 행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공격성 및 비행 행동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남아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되는 상황이나 문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처 행동 기술을 많이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들의 공격성과 비행 행동을 줄이는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은 남아의 공격성 및 비행 행동과는 상관

을 보이지 않았지만, 남아의 적극적 대처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r = .22, p < .05$)를 보여 어머니가 자녀를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양육행동은 남아가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 대처 행동을 가지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남아의 공격성 및 비행 행동에 간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어머니 양육 행동과 남아의 대처 행동이 이들의 외현화 행동 문제에 미치는 직, 간접적 경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남아의 내면화 행동 문제 하위 영역 중 위축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행동과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위축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 행동이 남아의 위축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이들의 위축 행동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r = .22, p < .05$),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 행동과 함께 살펴본 회귀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위축 행동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 행동과 같은 대인간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아동의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 및 통제를 많이 보일수록 아동이 위축된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LaFreniere와 Capuano(1997)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남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온정·수용 양육 행동은 남아의 비행 행동과 위축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지녔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4, 5학년 남아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비일관적 훈육이나 신체적 체벌과 같은 통제적 측면보다 애정적, 온정적 측면의 양육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박영애(1995)는 부모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지각하는 아동이 더 많은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Cowan, Cowan, Shulz와 Heming(1994)는 부모의 온정과 구조화 행동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온정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Clark와 Ladd(2000) 역시 아동의 또래 수용에 중요한 부모 역할은 아동에 대한 자율성 측면보다 정서적 차원을 포함한 관계성 측면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 행동은 온정을 포함하는 정서적 측면이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관점과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즉, 남아가 그들의 어머니에게 애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수용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은 이들의 비행 행동과 위축 행동을 덜 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남아의 정서 조절은 이들의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 문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 및 충동 억제가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황혜정(1997)의 연구나,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 문제와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김지현, 박경자, 2006; 노서연, 2003; Eisenberg, et al., 1999)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남아의 정서 조절은 적극적 대처 행동과 유의한 상관($r = .23, p < .05$)을 보였기에, 남아의 정서 조절 능력은 이들의 적극적 대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러한 간접적 경로를 분석한 것은 아니기에 해석에 유의하여야 하며, 남아의 정서 조절과 행동 문제의 직, 간접적 관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아의 행동 문제 중 대인간 변인과 개인내 변인 모두와 상관을 보인 외현화 행동 문제 중 공격성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과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여아의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회귀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외현화 행동 문제 중 공격성은 남아, 여아 모두 어머니 양육 행동과 같은 대인간 요인보다는 개인내 변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남아의 공격성에 적극적 대처 행동이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것과는 달리, 여아의 공격성에는 부정적 정서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이 여아의 외현화 행동 문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선희와 김경연(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외현화 행동 문제의 초기 수준과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Gillom과 Shaw(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공격성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한 본 연구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다(Berk, 1991)는 일반적 사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아는 대인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도록 사회화 되는 반면(Gore, Aseltine, & Golten, 1993), 남아는 자기 주장성, 경쟁성이 강조되고 공감 및 자기 조절 능력은 덜 강조되는 사회화 과정을 받는다. 이러한 남아, 여아의 다른 사회화 과정을 고려할 때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정서 측면은 여아의 공격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지닌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지선과 유안진(1999)의 경우 여아가 외부의 부정적 환경에 대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슬픔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표현은 행동 문제를 이끌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기술적 자료에서 남, 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고려할 때 이지선과 유안진(1999)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평가자가 어머니이었기에 어머니가 남아보다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 수용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같은 상황이라도 여아보다는 남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성을 더 예민하게 지각하고 더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남, 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실제로 관찰한 것이 아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4곳의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어머니 자신의 보고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실제 양육 행동보다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으로 평정될 수 있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아동의 행동 문제를 자기 보고식 도구로 측정하였기에 이것 역시 실제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행동 및 아동의 행동 문제의 평균이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을 아동 보고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거나 관찰 및 면접 등의 다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의 경우도 교사 및 부모 관찰을 통해 측정하거나 임상 집단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행동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간 요인인 어머니 양육 행동과 개인내 요인인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아동의 성을 구분하여 살펴본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남아의 적극적 대처 행동은 이들의 공격성과 비행 행동을, 남아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 행동은 남아의 비행과 위축 행동을,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이들의 공격성 행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졌다. 이는 아동의 행동 문제의 경우 기술통계적 성차의 여부를 넘어서서 아동의 성에 따라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므로, 아동의 행동 문제의 발달 경로가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볼 때 아동의 성에 따라 행동 문제의 중재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권연희, 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 권영옥,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선희, 김경연(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5.
- 김지현, 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노서연(2003).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순(1999).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우울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 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아, 정문자(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07-119.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오경자(1991). 아동·청소년 문제행동의 분류 및 진단. 한국 아동학회 추계 워크샵. 5-20.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K-YRS)**.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경주, 신호식(1998). 청소년기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유형과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 39-49.
- 이지선,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연진, 정문자(2003).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8), 139-158.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1997).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 331-350.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rber, B. K., Olsen, J. A., & Shagle, S. C.(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erk, L. E.(1991). *Child development*(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Bulkley, K., & Chao, R.(2003). *Adolescent perceptions of how parents should behave: Consequences for academic,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Post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 A., April 2003.
- Calkins, S. D.(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59, nos. 2-3, serial no.2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M. L., & Braungart, J. M.(1992). Family-peer connection: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lark, K. E., & Ladd, G. W.(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 Cold, C. R., Mott, J. A., & Berman, A. S.(2002). The interactive effects of infant activity level and fear on growth trajectories of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 1-23.

-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Cowan, P. A., Cowan, C. P., Shulz, M. S., & Heming, G.(1994). Prebirth to preschool family factors in children's adaptation to kindergarten. In R. D. Park & S. G. Kellam(Eds.), *Exploring family relationships with other social contex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ishion, T. J., Duncan, T. E., Eddy, M., Fagot, B. I., & Fetrow, R.(1994). The world of parents and peers: Coercive exchanges and children's social adaptation. *Social Development*, 3, 255-268.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1999).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 513-534.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et al.(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 295-311.
- Eme, R. F.(1979). Sex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rejoinder. *Psychological Bulletin*, 86, 574-595.
- Gillom, M., & Shaw, D. S.(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313-333.
- Gore, S., Aseltine, R. H., Jr., & Golten, M. E.(1993). Gender, social relational involvement, and depress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ts*, 3, 101-125.
- Griffith, M. A., Dubow, E. F., & Ippolito, M. F.(2000). Developmental and cross-situation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183-204.
- Horowitz, A. V., & White, H. R.(1987). Gender role orientations and styles of pathology among adolesce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158-170.
- Kauffman, J. M.(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2nd ed). Columbus: A bell & Howell Company, 14-22.
- Kim, J. E., Hetherington, E. M., & Reiss, D.(1999). Associations among family relationships, antisocial peers,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behaviors: Gender and family type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70(5), 1209-1230.
- Knight, G. P., Guthrie, I. K., Page, M. C., & Fabes, R. A.(2002). Emotional arousal and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 meta-analysis. *Aggressive Behavior*, 28(5), 366-393.
- LaFreniere, P. J., & Capuano, F.(1997). Preventive intervention as means of clarifying direction of effects in socialization: Anxious-withdrawn preschoolers cas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551-564.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MacKinnon-Lewis, C., Volling, B. L., Lamb, M. E., Dechman, K., Rabiner, D., & Curtner, M. E.(1994). A cross-contextual analysis of boy's social competence: From family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25-333.
- Martin, B., & Hoffman, J. A.(1990). Conduct disorders. In M. Lewis & S. M.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09-118. New York: Plenum.
- Morita, H., Suzuki, M., & Kamoshita, S.(1990). Screening measures for detecting psychiatric disorders in Japanese second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31(4), 603-617.
- O'Brien, M., Margolin, G., & John, R. S.(1995). Relation among marital conflict, child coping, and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3), 346-360.
- Rowe, D. C., Vazsonyi, A. T., & Flannery, D. J.(1995). Sex differences in crime: Do means and within-sex variation have similar caus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2, 84-101.

Shaffer, D. 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Tomson Learning.

Shields, A. M., & Cicchetti, D.(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Shields, A. M., & Cicchetti, D.(1997). Emotional regulation in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906-916.

Tamis-LeMonda, G. S., Briggs, R. D., McClowry, S. G., & Snow, D. L. (2009). Maternal control and sensitivity, child gender, and maternal education in relation to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21-331.

접 수 일 : 2009년 10월 29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2월 14일